



김연수씨

작가 김연수씨(30)가 첫 번째 창작집 《스무살》을 펴냈다. 이번 창작집에 실린 소설들은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 쓰여진 것들이다. 이제 서른 나이에 접어든 그는 지나가 버린 그의 이십대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소설집의 제목을 '스무살'이라고 지었다.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은 이십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십대의 대부분을 90년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는 헛것의 시대였습니다.”

‘막차’를 탄 세대의 불안감 그리

후기를 통해 그는 그 시절 어떤 콤플렉스도, 좌절감도, 심지어 성찰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에게 90년대는 몸에는 맞지만 정신적으로는 융화되지 못한 시대였다. 그는 89학번, 극에 달했던 ‘80년대’의 열기가 급속히 식어가던 때 대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닥쳐온 90년대는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던 눈으로 스타 TV에서 흘러나오는 뮤직비디오의 화려한 화면에 빠져들었고, 대학노트에 고민을 뽁뽁하게 적어가던 손으로 컴퓨터 오락에 탐닉했다. 그에게 90년대는 ‘상실’과 ‘공허’와 ‘환멸’이라는 이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작품집에 실린 소설들은 80년대 마지막 학번이라는 낯선 세대, 혹은 막차를 탄 세대의 곤



문학동네/A5신/296면/7500원

란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제가 느낀 모종의 불안감과 90년대를 보냈던 방식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뒤편에 도플갱어〉에서 볼 수 있듯, “대학로를 가득 메웠던 80년대 노동자들의 행렬과 중앙선을 가로질러 방향을 꺾으려다가(…) 자동차에 부딪혀 아스팔트에 길게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불꽃을 튀기며 날아가는 십대들의 오토바이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라는 작가의 의미심장한 진술은, 〈카르타필루스〉에 이르러 “아마 그들에게는 심각했던 변화함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꺾질을 고수한 암모나이트쪽은 지구 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으니까”는 실존적 진술로 확장되고 있다.

“〈카르타필루스〉를 통해 저는 작가라는 치욕스런 운명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은 비열한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암모나이트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살아남아야 하죠. 자신이 불멸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기록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의 글쓰기에 대한 자각은 이 책의 첫 번째 소설인 〈공야장 도서관 음모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새로운 선풍기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

‘90년대적 삶’의 공허함 고백한 창작집

소설집 《스무살》 펴낸 김연수씨

“저는 작가라는 치욕스런 운명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은 비열한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살아남아야 하죠. 자신이 불멸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기록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지 자신이 만들었던 선풍기를 모두 없애버려야만 하는 ‘선풍기 수집가’를 등장시킨 이 소설은 ‘왜 나는 써야만 하는가’라는 작가의 자의식과 ‘없어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책을 쓰는 게 일’인 작가의 운명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위대한 작품 앞에는 오직 좌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원본, 즉 완벽한 작품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는 고역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작가의 가혹한 운명입니다.”

마라톤과 소설쓰기의 상동성

그는 요즘 한창 마라톤에 빠져 있다. 매일 아침 5km씩 달린다. 지난 3월 19일에는 동아마라톤 하프코스를 완주하기도 했다. 그는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글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한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뛰어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아테네의 전령’처럼 쉼 없이 달려가는 그의 글쓰기는 이제 ‘스무살’이라는 기점을 지나 ‘스무살 이후’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 올 하반기쯤 그는 이상의 오감도 제16편에 관한 3부작 소설인 〈굳뎨이 이상〉을 펴낼 계획이다.

— 최갑수 기자